

# 중년여성의 노후소득보장정책에 관한 연구 : 노후재취업을 중심으로

양 영 철\* · 임 정 현\*\*

## 목 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1.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대한 기존연구
  - 2. 중·고령자의 재취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III. 연구의 설계 및 분석
  - 1. 변수의 설정 및 조작적 정의
  - 2. 연구대상의 선정 및 자료수집 방법
  - 3. 노후 재취업욕구(needs) 예측분석
- IV.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 2. 노후 재취업 영향요인 분석
  - 3. 노후 재취업욕구(needs) 예측분석
- V.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I. 서론

우리나라는 이미 UN이 정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다. 특히 현재 선진국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과 빠른 속도의 고령화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적정 인구수준 유지와 자질 향상, 고령인력의 생산적인 활용

\*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과 노인복지 증진 등 적극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고령사회대책 및사회통합기획단」을 설치하여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을 마련(보건복지부, 2003)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사회는 여전히 노동력은 감소하고 부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늘어나 경제 및 사회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도 길어진 노년의 삶을 누가 보장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고령화사회는 노인 개인적으로는 흔히 4고(苦)라고 일컫는 빈곤, 질병, 고독, 역할상실의 문제와 사회경제적으로는 피부양인구의 증가로 인한 생산활동인구의 부양부담 증가, 피부양 세대와 부양세대간의 갈등, 연금제정 고갈, 의료비 증가, 경기침체 등의 여러 문제를 발생시킨다.

개인적 차원에서 노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문제 중에서 특히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이 경제적 어려움이다(통계청, 2003a). 노후의 삶에 있어서 경제력은 노인의 건강문제를 예방, 치료하는것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심리·정서적 만족을 주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지만 노년기 경제적 문제에서 자유로운 노인들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체노인의 절반가량이 자신의 상대적인 경제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정경희외 1998), 이가옥(1994)등의 조사에 의하면 노인들의 60%가 20만원 미만의 금액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의 60% 정도가 법정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최저”이하의 생활의 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노후 준비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49%로 절반에 가깝다(통계청, 2003b).

더욱이 고령화사회의 여성은 더욱 불길한 노후생활을 전망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를 경험하게 되는 현재의 중년여성<sup>1)</sup>들은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와 핵가족화, 가치관의 변화 등을 경험하면서도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전통 사회의식의 의존적

1) 중·장년기 개념은 Erickson(1956)은 40~60세로 규정하고 Generativity vs Stagnation로 구분하고 있고, Neugarten & Gutmaon(1958)은 40~54세와 55~70세를 Early Middle Age와 Late Middle Age로, Vincent(1972)는 35~55세를 Caught Generation로, Havighurst(1972)은 35~60세를 Middle Adulthood로, Levinson(1978)은 40~45세와 45~60세를 Mid Life Transition과 Middle Adulthood로, Thompson(1980)은 35~50세를 Mid Life로, Farrell & Rosenberg(1981)는 38~40세를 Middle Aged로 O'Connor(1985)는 35~50세를 Mid Life로 규정하고 있으나(김명자, 1988),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준용하여 40~59세를 중년여성으로 규정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관념을 가진 노부모를 책임져야 하고 본인 자신은 자녀로부터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기 때문에 정작 본인의 노후 생활에 대해선 제대로 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2000년 「가구소비실태 조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에서 여성가구의 비율은 18.5%, 60세 이상 노인 가구주 가구는 19.4%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 전체 가구의 절대 빈곤율은 8.1%인데 여성가구주 가구와 노인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전체 가구 빈곤율의 각각 1.5배, 4배 이상으로 여성 및 노인이 절대적으로 열악한 경제상황에 놓여져 있다(구인회, 2004). 또한 국민연금 가입 비율 및 개인연금 가입비율의 통계치에서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턱없이 작다. 따라서 여성은 남성보다 ‘돈없이 오래 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는 것이다<sup>2)</sup>.

현재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이다. 서구사회에서 노인들의 수입원이 주로 자립적인 것으로 연금제도 등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박차상외, 2002)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저기여 고급여의 구조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장기적 연금재정의 불안정 문제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연금의 사각지대<sup>3)</sup>와 관련된 문제들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는 장기적으로 볼 때 전체 국민의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제도가 아니라 일부계층만을 위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실제적인 대안으로 부족한 실정이다(김미숙외, 2003).

따라서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문제, 공적부양 부담의 증가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노인 개인의 노후생계비 보장을 위한 각종 사회정책이 강구되어야 시점이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대안으로 노후 재취업이 부각되고 있는데 노후 재취업은 노후생계비 보장과 함께 활기찬 노후(Active Aging)을 위한 건강과 여가활동의 의미를 내포하므로 고령화 시대에 효과적인 노후소득보장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다.

2) 2003년 7월말 전국 국민연금가입자는 1703만7761명이며, 이 가운데 남성은 1128만 387명으로 66.2%, 여성이 575만7374명으로 33.8%이다. 또한 개인연금에 가입한 남성은 대략 245만3000명(67.2%), 여성은 120만명(32.8%)으로 집계됐다(동아일보, 2003.9.18).

3) 2002년 12월 기준으로 18세 이상 59세 미만 3002만명의 총인구 가운데 공적연금의 수급권을 갖추어 가고 있는 인구는 38.9%인 1168명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61.1%인 1835만명은 연금수급을 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석재은, 2003)

노후 재취업은 자녀의 부양기능 약화, 조기 정년제, 열악한 노인복지 재정, 노후 소득보장 정책의 불안정 문제, 사회참여의 욕구 등의 요인으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 측면에서 임금근로자 중심의 재고용, 정년연장 등이 중심이 되는 현행 고령자고용정책은 임금근로자 비율이 적고, 임금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일용직에 많이 종사하는 여성의 특성상 거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중년여성의 노후 재취업에 대한 제도적 도움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중년여성은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녀의 부양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국민연금 가입을 또한 저조하여 불길한 노후를 전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년여성의 노후 재취업은 남성들에 비하여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노후 소득보장정책의 하나이나, 제도적인 도움이 미비한 것은 중년여성의 노후 재취업욕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의 노후 일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파악하는데 있어 어떤 요인이 노후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궁극적으로 중년여성의 노후 재취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여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여성의 노후 재취업 욕구(needs)를 고려한 고령자 고용정책 방향의 재정립, 직업상담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대한 기존연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특성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해 보면, 한국여성개발연구원이 1985년 기혼여성의 취업실태를 조사하여 생애주기와 관련, 기혼여성의 취업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였다. 결혼 또는 첫 자녀 출생 전까지 일하는 관습형(19.3%), 결혼 또는 첫 자녀 출생 전에 노동시장을 떠났으나 막내자녀 출생 후에

노동시장으로 돌아온 복귀형(14.9%), 전 인생에 걸쳐 일했거나 잠시 노동시장을 떠났더라도 막내자녀 출생이전에 노동시장에 돌아온 이중역할형(51.2%), 그리고 막내자녀 출생 이후에 노동시장에 처음 들어온 안전 역할형(14.6%)의 M자형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이후 2002년까지 4차에 이르는 조사가 이루어 졌다. 조사가 횟수를 거듭 할수록 여성노동시장 상황도 많은 변화를 보였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여성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나 가족의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도 많은 변화를 보였다. 최근의 제4차 조사에서는 기존의 조사에 비해 변화된 양상을 보이는데, 여전히 전형적인 M자형 곡선을 보이고 있지만 비교적 그 기울기가 완만해 졌다. 즉, 결혼, 출산, 육아, 자녀의 교육시기에도 여성의 경제활동이 약간씩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요인들이 여성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들이 완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의 생애사건별 기간변화를 세대별로 보면 막내자녀 출산 이후 취업가능기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황윤재외(1998)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여부의 결정요인을 그 개인이 노동공급을 함으로써 얻는 기대수익으로서의 시장임금과 기회비용의 성격을 갖는 의중임금을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여 타가구의 소득, 교육수준, 자녀수, 연령, 경제활동참가 경력, 실업률을 영향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준모수추정법을 이용하여,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8세미만의 자녀수, 연령, 학력 및 경력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에 참가할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홍(2000)의 연구에서는 학력, 연령, 경력, 6세미만 자녀, 타가구원 소득, 배우자여부, 지역여성 노동수요를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요인으로 모형추정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경력이 많을수록, 6세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타가구원의 소득이 낮을수록, 지역 노동수요가 높을수록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은 결과를 보였다.

그 외의 연구에서 기혼여성들은 노동시장의 여건만큼이나 노동 공급측의 요인에 의해 취업의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교육수준, 연령, 노동시장 참여 규모 등 가구관련 변수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선영규, 1986; 양승주, 1993; 여정성, 1994)

이를 종합해 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연령, 학력, 소득수준, 경제활동참가 경력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막내 자녀 출산이후 취업기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비해 중년여성의 노후 취업욕구 및 일에 대한 인식을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생애주기적 취업실태 조사에 있어 노후 재취업에 대한 취업 유형 조사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노후 여성의 재취업에 대한 연구는 그 접근 방법이 타 연구와는 달라야 하는데, 왜냐하면 노후 재취업은 여성이 육아 및 가족부양 등의 가족봉사에서 벗어나는 시기로 기존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대한 연구 등에서 다른 가구의 특성, 자녀 나이 및 수 등의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2. 중·고령자의 재취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우선 재취업이란, 특별한 이유로 인해 노동시장을 퇴출한 뒤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현상을 의미한다(한국여성개발원, 1996). 국내에서 재취업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고령자 취업실태 및 문제점과 취업알선센터를 통한 취업욕구조사를 통해 고령자 취업활성화 방안을 다루고 있긴 하나 중·고령자의 재취업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중 몇몇 연구들은(강철희 외, 1998; 김종주, 1999; 류기철, 1999; 류태균 1998)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가능성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김학주외(2004) 연구에서는 중·고령자의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개인의 노동 공급측 요인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수요측 요인을 고려한 관점에서 접근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 내용을 보면, 재취업에 관한 인적자본이론, 직업탐색이론, 노동시장분절론 등 어느 한 이론이 현실적으로 확고하게 부합되는 것이 아니라 변수별로 각 이론의 논거에 부합되는 관계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남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이전 임금이 높을수록, 근속년수가 낮을수록, 실업급여를 받을수록 재취업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

에 의하면 고령자들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여성일수록 재취업 의향이 높으며 그 이유는 “돈이 필요해서”로 재취업이 경제적인 이유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창원 외(2003)의 연구에서는 중·고령자의 경우 재취업을 원하지 않는 계층이 고소득 계층일 경우 저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재산형성 정도가 높은 전문 직업을 경험한 근로자의 경우 노동시장의 재진입 시 취업할 수 있는 직업이 자기가 경험을 살리고 생산성에 기여할 수 없는 저임금의 직업일 때에는 사회적인 체면 등과 같은 현실적인 제한으로 일정 수준의 재산을 갖고 있을 때에는 노동시장 재진입을 포기하게 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노후 재취업 결정요인의 다양한 설명변수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후 재취업을 노후의 소득보장 방법의 하나로 본다면, 현재 노후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평가 및 노후생활보장에 대한 기대도에 따라 노후 재취업결정 요인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이에 대한 변인을 고려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가지 연구경향에 있어 기존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대한 연구를 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노후의 재취업까지 확대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중·고령자의 재취업에 있어서 재취업과 노후소득보장정책의 상호보완적 측면을 고려하여 재취업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우리나라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정책인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도를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 Ⅲ. 연구의 설계 및 분석

#### 1. 변수의 설정 및 조작적 정의

##### 가.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재취업의사를 나타내는 이분변수(discrete variable)이다. (미취업의사 0, 재취업의사 1)

## 나. 독립변수

### ① 연령

전국적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연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성인기 초기인 20-24세에 가장 높고 45-49세에 다시 참가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진수희, 1992) 또한 양승주(1993)는 1992년 여성취업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혼여성의 경우 40대 후반까지는 연령과 경제활동 참가율이 정적관계를 보이지만 그 이후에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 ② 교육수준

기혼여성의 교육수준이 잠재적 시장임금을 상승시키므로 가정생산에 대한 대체효과로 인해 경제활동 참가율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교육으로 인한 가사노동의 생산성으로 인해 반대로 참가율이 감소되는 상반된 영향력을 갖기도 한다.(Leibowitz, 1974) 김학주·우경숙(2004)은 고령자의 재취업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재취업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③ 경제활동(고용형태) 유무

중년여성에게 있어서 취업경험은 주부역할이나 취업역할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취업경험이 없었던 중년여성은 보다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역할태도를 보이는 한편(오클리 저, 문숙재 역, 1990), 과거 취업경력이 많을수록 경제활동 참가에 적극적인 경향이 있어 (양승주, 1993) 노후 재취업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Atkinson과 Micklewright(1991)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진입할 확률이 낮으며, 고용형태가 정규직일수록 재취업 가능성은 유의미하다고 김학주·우경숙(2004)의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 ④ 소득수준

삼성경제연구소(2004)의 연구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층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는 응답의 비중은 대체로 감소하는 반면, 정년보장 및 연장이 필



요하다는 응답은 증가하는 연구 결과가 있다. Mincer(1962), Cain(1996)의 연구에서 남편의 교육정도나 직업수준에 있어서의 평상소득, 즉 향상 소득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⑤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존경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 있는 존재 라는 생각(Rosenberg,1979)이나, 자신이 유능하고 중요하며 성공할 수 있고, 가치가 있다는 개인적 신념의 범위를 포함한 심리적 반응(Coopersmith,1967), 즉 자아개념의 의식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차원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든 생활을 가치 있고 보람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 있게 행동하기 때문에 진취적인 삶을 살아간다(Hulbary,1975). 노후의 자립적인 삶을 위한 자아존중감의 영향을 평가하고자 변수로 설정하였다.

#### ⑥ 노후준비 정도

노후준비 정도에 따른 고령자 취업욕구를 분석한 연구에서 노후준비가 잘되어 있어도 고령자 취업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참여욕구가 취업욕구로 나타난 것(안혁준, 2002)이므로 노후 준비에 따른 노후 재취업 의사를 구분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변수가 될 수 있다.

#### ⑦ 주관적인 경제만족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요인으로 남편의 향상 소득보다는 준거집단의 생활수준을 따라가고 싶은 욕망의 중요성을 언급한 연구가 있으며(김수곤, 심경옥, 1984), 주관적으로 가계의 경제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취업의사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가 있다(김혜연·김숙미,1997)

#### ⑧ 국민연금의 기대도

삼성경제연구소(2004)의 조사에서 조사대상 가구의 98%가 현행의 국민연금이 노후 대비수단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하였으나, 국민연금이외의 노후대비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가구도 15.8%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노후에 대한 불안은 노후 취업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변수로 설정하였다.

<표 3-1> 변수와 변수의 구성

구분	변 수		변 수 구 성	상 관 계
종속 변수	노후 재취업		재취업의사를 나타내는 이분변수 (재취업의향 1, 미취업의향 0)	
독 립 변 수	인구 사회학적 요인	연령	연령 : 40~50대를 5세단위로 세분	+
		교육수준	교육수준 : 중·고·대·대학원 졸	-
		경제활동여부 (고용형태)	현재 경제활동 여부 무직 : 0, 정규직 : 1, 비정규직 : 2	+
		소득수준	소득수준 : 연평균 1천만원이하부터 5천 만원이상까지로 세분	-
	개인적 요인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측정척도 (1~4점 척도)	+
		노후준비정도	노후대비정도를 노후대비 저축률이 월평 균수입에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	+
		주관적 경제인식	주관적 경제상태 만족도 (1~5점 척도)	+
	제도적 요인	국민연금이 노후대비책으로 가능정도	노후 생활비에 연금으로 충당되는 비율 로 측정	-

이들 변수를 포함하는 중년여성의 노후 재취업 욕구(needs)를 식으로 표현 하면 다음과 같다.

<중년여성의 재취업 욕구(needs) 분석 모형> <sub>i</sub>

$$\ln \left( \frac{p}{1-p} \right) = \alpha + \beta_1 AGE_i + \beta_2 EDU_i + \beta_3 ACT_i + \beta_4 INC_i + \beta_5 SEL_i + \beta_6 SAV_i + \beta_7 ECO_i + \beta_8 PEN_i$$

P : 종속변수 (재취업 여부)

<sub>i</sub> : 응답자

$\alpha$  : 계수값

AGE : 연령

EDU : 교육수준

ACT : 경제활동유무

INC : 소득수준

SEL : 자아존중감

SAV : 노후준비정도

ECO : 주관적 경제만족도

PEN : 국민연금기대도

## 2. 연구대상의 선정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노후 재취업 의사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을 제주도내 40~50대 중년여성들로 선정하였으며, 예비조사는 2005년 5월 6일부터 5월 1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나타난 질문지 상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여 본 조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조사는 제주도내 40~50대 중년여성들 중에서 222명을 대상으로 2005년 5월 14일부터 5월 19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적절치 못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194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표본추출방법은 모집단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무작위 표본추출(Random Sampling)에 의하였다.

분석을 위해 SPSS for window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및  $\chi^2$ 검정 등을 사용하였으며, 재취업의사 수요 예측 모형을 위해 종속변수의 범주가 2개 일때 이용할 수 있는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설문조사의 모집단인 제주지역의 중년여성의 연령별 구성비는 <표3-2>에 제시되어 있다. 40~44세의 표본의 구성비가 모집단의 구성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대체로 조사대상자의 연령대가 40~44세가 40.7%, 45~49세가 28.9%, 50~54세가 16%, 55~59세가 15.5%로 모집단의 구성비와 유사하게 추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4-1> 제주지역 중년여성의 연령별 분포현황 (단위 : 명, %)

구 분	인구수	구성비	표본수	구성비
40~44세	22,696	34%	79	40.7%
45~49세	18,470	28%	56	28.9%
50~54세	12,986	19%	31	16.0%
55~59세	12,575	19%	28	14.4%
계	66,727	100%	194	100%

자료 : 통계연보(2003). 2003년 12월 31일 현재 인구수임.

조사대상자 학력수준은 중졸이하가 15.5%, 고졸 53.1%, 대졸 또는 전문대졸 30.4%, 대학원졸 1.0%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수준은 87.6%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중 54.1%가 비정규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경기불황으로 인한 고용의 다양화, 채용 규제 완화, 고용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요인으로 현재 중년여성도 비정규직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수준은 연 평균소득수준별로 22.7%(1천만원 미만), 28.4%(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16.5%(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21.1%(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1.3%(5천만원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자세한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 <표 4-2>와 같다.

<표 4-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항목	구 분	응답자수	백분율(%)	합계(명/%)
연령	40~44세	79	40.7	194(100)
	45~49세	56	28.9	
	50~54세	31	16.0	
	55~59세	28	14.4	
학력	중졸이하	30	15.5	194(100)
	고졸	103	53.1	
	대졸 또는 전문대졸	59	30.4	
	대학원졸	2	1.0	
경제활동	무직	24	12.4	194(100)
	정규직	65	33.5	
	비정규직	105	54.1	
연평균소득	1천만원이하	44	22.7	194(100)
	1천만원이상2천만원미만	55	28.4	
	2천만원이상3천만원미만	32	16.5	
	3천만원이상5천만원미만	41	21.1	
	5천만원이상	22	11.3	

## 2. 노후 재취업 영향요인 분석

분석 결과를 <표4-3>에서 살펴보면 통계학적으로 경제활동여부와 소득수준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중년여성의 재취업 의사는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11.2%, 정규직으로 일을 하는 경우는 30.6%,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58.2%로 나타나 비정규직일수록 재취업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p < .05$ )

김학주(2004)의 연구에서 정규직일수록 재취업가능성이 높은 결과는 정규직일수록 재취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만 비정규직일 경우엔 현재의 고용불안 등으로 인해 노후 재취업에 더 높은 의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수준에 따른 재취업의사는 1천만원이하일 경우 25.9%, 1천만원이상 2천만원 미만일 경우 32.4%, 2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일 경우 16.5%, 3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일 경우 18.2%, 5천만원이상일 경우가 7.1%로 평균소득이 낮을수록 노후 재취업 의사는 높게 나타났다( $p < .001$ )

그러나 연령 및 교육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재취업과 관련된 영향요인 중 연령 및 교육수준은 유의미한 요인이었으나 본 연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이유는 연령을 40~50대로 한정하여 변별력이 적었기 때문이며, 교육수준은 경제활동인구가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한 85.8%로 대부분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표4-3> 재취업의사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요인별 분포

(단위 : 명, %)

		재취업의사		전체 (n=194)	x <sup>2</sup> (P)
		미재취업 의향자(n=24)	재취업 의향자(n=170)		
연령	40~44세	9(37.5)	70(41.2)	79(40.7)	1.491(.684)
	45~49세	9(37.5)	47(27.6)	56(28.9)	
	50~54세	4(16.7)	27(15.9)	31(16.0)	
	55~59세	2(8.3)	26(15.3)	28(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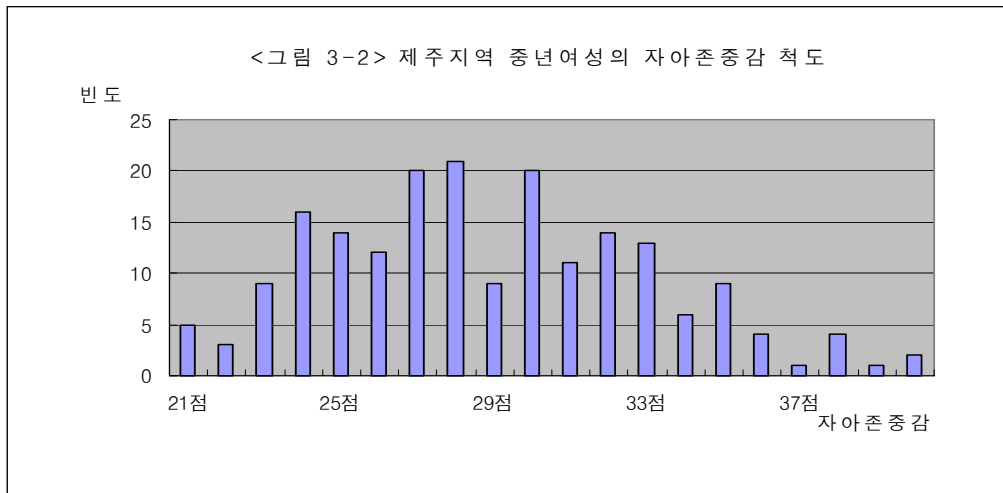
(계속)

		재취업의사		전체 (n=194)	x <sup>2</sup> (P)
		미재취업 의향자(n=24)	재취업 의향자(n=170)		
교육수준	중졸이하	3(12.5)	27(15.9)	30(15.5)	4.582(.205)
	고졸	10(41.7)	93(54.7)	103(53.1)	
	대졸 또는 전문대졸	10(41.7)	49(28.8)	59(30.4)	
	대학원졸	1(4.2)	1(0.6)	2(1.0)	
경제활동 (고용형태)	무직	5(20.8)	19(11.2)	24(12.4)	9.367(.009)**
	정규직	13(54.2)	52(30.6)	65(33.5)	
	비정규직	6(25.0)	99(58.2)	105(54.1)	
소득수준	1천만원이하	-(0.0)	44(25.9)	44(22.7)	41.652(.000)***
	1천만원이상 2천만원미만	-(0.0)	55(32.4)	55(28.4)	
	2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4(16.7)	28(16.5)	32(16.5)	
	3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10(41.7)	31(18.2)	41(21.1)	
	5천만원이상	10(4.7)	12(7.1)	22(11.3)	

\*p<.1 \*\*p<.05 \*\*\*p<.001

둘째, 개인적 요인에 따른 재취업의사의 분포를 살펴보면 우선 제주지역 중년여성의 자아존중감 척도의 분포는 <그림4-1>과 같다.

제주지역 중년여성의 자아존중감은 평균 28.8점으로 대체로 높은 수준이었고, 자아존중감에 따른 노후 재취업의사는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표 4-4참조)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p<.1). 이는 자아존중감이 자기 자신을 존경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제주지역 중년여성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강한 활동성과 높은 취업욕구, 자아실현 욕구 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노후에 생기는 문제나 어려움을 완화시키고 노후 재취업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된다.



또한 주관적인 경제만족도는 “보통이다”라고 느끼는 중년여성이 전체의 41.8%, “만족하지 않는다”, “대체로 만족한다”가 각각 23.7%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 45.9%가 재취업의사를 나타내고 있어 재취업의사가 없는 경우의 12.5% 보다 훨씬 더 많은 재취업의사를 나타냈다( $p < .05$ ).

주관적인 경제상태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와 대체로 만족하는 경우에 각각 23.5%, 21.2%로 비슷한 수준의 재취업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중년여성이 주관적 경제상태 인식정도가 만족하든, 그렇지 못하든 많은 중년여성의 노후재취업의사가 경제적 이유로 인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다.

<표4-4> 재취업의사에 따른 개인적 요인별 분포

(단위 : 명,%)

		재취업의사		전체 (n=194)	x <sup>2</sup> (P)
		미재취업 의향자 (n=24)	재취업 의향자 (n=170)		
자아 존중감	21점	1(4.2%)	4(2.4%)	5(2.6%)	29.102 (.064)*
	22점	0	3(1.8%)	3(1.5%)	
	23점	0	9(5.3%)	9(4.6%)	
	24점	2(8.3%)	14(8.2%)	16(8.2%)	
	25점	1(4.2%)	13(7.6%)	14(7.2%)	
	26점	0	12(7.1%)	12(6.2%)	
	27점	4(16.7%)	16(9.4%)	20(10.3%)	
	28점	2(8.3%)	19(11.4%)	21(10.8%)	
	29점	1(4.2%)	8(4.7%)	9(4.6%)	
	30점	1(4.2%)	19(11.2%)	20(10.3%)	
	31점	2(8.3%)	9(5.3%)	11(5.7%)	
	32점	3(12.5%)	11(6.5%)	14(7.2%)	
	33점	0	13(7.6%)	13(6.7%)	
	34점	0	6(3.5%)	6(3.1%)	
	35점	2(8.3%)	7(4.1%)	9(4.6%)	
	36점	1(4.2%)	3(1.8%)	4(2.1%)	
	37점	0	1(0.6%)	1(0.5%)	
	38점	3(12.5%)	1(0.6%)	4(2.1%)	
	39점	0	1(0.6%)	1(0.5%)	
	40점	1(4.2%)	1(0.6%)	2(1.0%)	
노후준비 정도	없다	1(4.2%)	16(9.4%)	17(8.8%)	10.413 (.108)
	월평균소득의 5%이내	3(12.5%)	32(18.8%)	35(18.0%)	
	월평균소득의 5-10%	5(20.8%)	36(21.2%)	41(21.1%)	
	월평균소득의 10-15%	7(29.2%)	21(12.4%)	28(14.4%)	
	월평균소득의 15-20%	0	25(14.7%)	25(12.9%)	
	월평균소득의 20-30%	6(25.0%)	24(14.1%)	30(15.5%)	
	월평균소득의 30%초과	2(8.3%)	16(9.4%)	18(9.3%)	
주관적 경제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8.3%)	13(7.6%)	15(7.7%)	17.206 (.002)**
	만족 하지 않는다	6(25.0%)	40(23.5%)	46(23.7%)	
	보통이다	3(12.5%)	78(45.9%)	81(41.8%)	
	대체로 만족한다	10(41.7%)	36(21.2%)	46(23.7%)	
	매우 만족한다	3(12.5%)	3(1.8%)	6(3.1%)	

\*p<.1 \*\*p<.05 \*\*\*p<.001



셋째, 제도적 요인으로 현행 노후소득보장정책인 국민연금 노후대비책으로 기대도를 변수로 선정하여 재취업 의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 노후생활비의 15% 이내로 응답한 경우 노후재취업의사의 전체 88.8%를 차지하고 있어 현행 국민연금이 노후대책 기대도는 낮고 노후생활 대비방안의 보완으로 노후재취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p<.1).

현행 국민연금이 40년 가입한 평균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60%로 급여수준을 책정하였으나 실제로 제주지역 중년여성의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은 15% 수준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 개혁이 몇 년째 지지부진해 가입자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05년 4월에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연례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연금기금 개혁이 어느 국가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어(동아일보, 2005), 앞으로 당분간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노후 재취업의사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표4-5> 재취업의사에 따른 제도적 요인별 분포

(단위 : 명, %)

		재취업의사		전체 (n=194)	x <sup>2</sup> (P)
		미재취업 의향자 (n=24)	재취업 의향자 (n=170)		
국민연금 노후대비 정도	미가입	6(25.0%)	50(29.4%)	56(28.9%)	13.170 (.068)*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1(4.2%)	15(8.8%)	16(8.2%)	
	노후생활비의 5%이내	5(20.8%)	43(25.3%)	48(24.7%)	
	노후생활비의 5-10%이내	2(8.3%)	24(14.1%)	26(13.4%)	
	노후생활비의 10-15%이내	3(12.5%)	19(11.2%)	22(11.3%)	
	노후생활비의 15-20%이내	2(8.3%)	11(6.5%)	13(6.7%)	
	노후생활비의 20-30%이내	2(8.3%)	6(3.5%)	8(4.1%)	
	노후생활비의 30%초과	3(12.5%)	2(1.2%)	5(2.6%)	

\*p<.1 \*\*p<.05 \*\*\*p<.001

### 3. 노후 재취업욕구(needs) 예측분석

중년여성의 노후 재취업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최종 분석을 위해  $x^2$ 검정 분석 결과 유의미한 값을 나타내는 변수를 중심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단계별 선택법(stepwise selection)을 거쳐 유의한 독립변수들을 선택적으로 포함한 결과 다음과 같이 최적의 독립변수를 구성한 결과는 다음 <표4-6>과 같다.

중년여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에서는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경우( $B=1.238$ ,  $p<.05$ ), 소득이 낮을수록( $B=-1.694$ ,  $p<.001$ ) 재취업의사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요인의 경우 노후 재취업 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노후 준비 정도였으며, 노후 준비정도가 높을수록( $B=.299$ ,  $p<.1$ ) 노후 재취업 의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요인중에서는 분석 결과 국민연금에 노후생활 대비에 대한 기대도가 낮을수록( $B=-.221$ ,  $p<.1$ ) 노후 재취업의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은 상당히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x^2=2.643$ ,  $p=.955$ ), Nagelkerke  $R^2$ 에 의한 설명력은 47.2%로 높은 수준이었다<sup>4)</sup>.

재취업 의사 없는 24명중에서 역시 재취업의사 없을 것이라고 옳게 예측한 확률은 37.5%(9/24)이며, 재취업의사가 있는 경우 옳게 분류한 확률은 97.1%(165/170)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옳게 분류한 확률은 89.7%이다.

<표3-7>에서 보듯이 경제활동이 가장 영향력이 크며, 다음으로 노후준비정도, 국민연금의 노후대비책의 기대도, 소득수준의 순이었다.

이는 과거 취업경력이 많을수록 경제활동 참가에 적극적인 경향이 있는 선행연구(양승주, 1993)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재취업의사가 높은 이유는 현재 소득수준으로 유추하는 미래의 소득수준이 경제 불황, 금리하락 등으로 현재 보다 낮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노후준비정도가 높을수록 노후 재취업의사가 높은 것은 노후에 대한 준비의식이 높을수록 노후 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 노후 소득보장의 대비방안으로 재취

4) Nagelkerke  $R^2$ 는 선형회귀분석의  $R^2$ 와 마찬가지로 0과 1사이의 값으로 존재하고 1에 가까울수록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회귀계수의 p-value는 낮아지고, 높은 판별력의 로지스틱 모형이 된다.

업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또한, 국민연금의 노후생활에 대한 기대도가 낮을수록 노후 재취업의사가 높은 것은 국민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정책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표 4-6> 노후 재취업의사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B	S.E.	P	Exp(B)
경제활동	1.238**	.417	.003	3.450
소득수준	-1.694***	.357	.000	.184
노후준비정도	.299*	.170	.079	1.348
주관적경제만족도	.195	.305	.522	1.215
국민연금기대도	-.221*	.134	.099	.802
(상수)	5.205***	1.392	.000	182.109
Hosmer와 Lemeshow 검정				x <sup>2</sup> =2.643, p=.955
-2 Log likelihood				89.689
Nagelkerke R <sup>2</sup>				.472

\*p<.1 \*\*p<.05 \*\*\*p<.001

위 분석결과로부터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y = 5.205^{***} + 1.238^{**}ACT - 1.694^{***}INC + 0.299^{**}SAV + .195 ECO - 0.221^{*}PEN$$

계수가 갖는 의미를 해석해 보면 다른 요인의 값을 일정하게 놓고 소득이 1단위 감소하면 노후에 재취업 의사를 가질 확률은 재취업의사를 갖지 않을 확률 보다 0.184배 증가한다. 이는 지속적인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보면 실질적인 소득은 줄어들 것이며 노후 재취업 확률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경제활동, 소득수준, 주관적 경제만족도, 국민연금 기대도가 일정하고 노후 저축수준이 1단위 증가하면 노후 재취업 확률은 1.348배 증가한다. 이는 노후 대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할수록 노후재취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보여 진다.

또한 다른 요인의 값이 일정할 때 국민연금의 노후대비 기대도가 1단위 낮아지

면 노후에 재취업할 확률은 0.802배 증가한다. 이는 국민연금이 2035년경에 가입자보다 수급자의 수가 더 많아져 제도부양비가 53%를 넘어서게 되고, 이러한 인구구조와 현재 보험료율 9%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연금기금은 2037년에 수지적자를 기록하고, 2047년이면 적립기금이 다 소모되어 재정의 파탄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어(국민연금발전위원회, 2003) 지속적으로 연금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해 보면 앞으로 노후재취업 의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년여성의 노후 재취업의사는 경제 불황, 저금리, 연금 불신,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원인으로 노후 재취업의사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노후 재취업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따른 중년여성의 노후재취업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 V. 결론 및 제언

재취업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각 변수별로 각 이론의 근거에 부합되는 관계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때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될 수 있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는 재취업 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경제활동과 소득수준이고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변수는 연령과 교육수준이었다. 교육변수의 경우 외국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재취업 가능성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는 교육수준이 재취업에 나타나는 효과가 다양하기 때문인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일에 대한 자아실현 욕구가 높아 재취업의사가 높은 경우와 교육수준이 낮아 생계 목적으로 재취업의사가 높은 경우에 대한 차별적인 접근이 미흡했던 문제로 해석된다.

개인적 요인에 있어서 자아존중감 및 주관적인 경제인식은 노후재취업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것은 중년여성에게 “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아직도 “일”이라는 것은 자아실현의 의미보다는 “노동”의 의미가 더 가깝기

때문에 중년여성의 주관적인 인식보다는 다른 경제적인 요인 등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앞으로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수입보장이 우선시 되는 직종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되며 이에 대한 고용창출과 직업알선체계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노후준비정도의 영향력을 파악함에 있어 노후준비정도를 노후대비 저축수준으로 한정시킨 것은 다양한 노후준비 방법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지는 못했으나, 노후생활의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의 평가로 저축률은 바람직한 지표라고 보인다. 노후준비정도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현재의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노후준비를 하고 있어도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라 보인다. 통계청조사에 따르면 가처분소득 중 소비성 지출의 비중을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은 최근 몇 년간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크게 하락했다. 50~54세의 2000년 82.9%였으나 2003년 75.5%로 7.2%나 떨어져(동아일보, 2005), 노후불안감 확산은 한동안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 노후 재취업 수요 또한 같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 요인으로 국민연금의 노후대비 기대도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소득보장에 대한 대비책으로 국민연금에 기대가 높으면 노후 재취업의사는 낮으며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가 낮으면 노후 재취업의사가 높아진다. 즉, 국민연금과 노후재취업은 동일한 노후소득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상호보완적임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대체율이 중간소득자가 40년 이상 가입한 경우 60% 것에 비하여 노후생활비의 30%를 초과하여 충족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는 겨우 1.2%에 불과하여, 정부에서 홍보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연금이 실제로 그렇게 보장되리라 기대하는 경우는 매우 적었다.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노후 소득보장정책의 효과를 위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잠식시킬 수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 국민연금의 개혁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여러 가지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러 권고안 중에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국민연금을 효과적으로 개혁하지 않는 이상 연금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져가고 노후소득보장정책으로서 실질적인 보장은 점점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제언은 다음과 같다.

## 1. 중년여성의 노동력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인 고용정책 수립

노후 재취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고용이나 취업분야에 대한 남성과 여성이 특성은 다르게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노인복지법」이나 「고령자고용촉진법」 및 관련 정책은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여성에게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 앞서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제도의 효과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여성보다 남성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에서 여성 고령자 고용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

이렇게 여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여성의 노후 취업에 대한 편견에 의해 여성을 노후 고용정책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중년여성의 노후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경제활동 참가 여부였다.

중년여성의 경제활동의 특성은 비정규직으로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직종 간 분리현상을 가속화하여 남녀불평등을 구조화 하고, 근로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 각종수당휴가, 사회보험에서 차별받고 있어 이는 실제로 노후 재취업에서도 제대로 된 일자리로 연결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따라서 고용관계 다양화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오랜 기간의 비정규직종 종사경력으로 중년여성의 직업능력의 비전문화와 비경제활동 중년여성인 경우 취업 능력 부족에 따른 직업훈련 및 직업상담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노후 재취업을 제고하는 정책은 중년여성의 개별적인 고용욕구, 건강, 생활수준 등의 개인적 특성에 기초한 차별적인 정책이 필요한데 첫째, 여가시간이 많고 근로를 원하지 않으면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여성을 위한 정책, 둘째, 근로를 통해서 수입을 얻고 사회참여를 원하는 중산 및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여성고령자를 위한 정책이 그것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특히 사회적 일자리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제공하는 것으로 사회에서 누군가는 담당해야 하는 일이지만, 이윤을 많이 창출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이 담당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따라서 이러한 일자리에 적합한 층은 고용이 되기 어려우면서도 많은 수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이다. 여성을

고용함에 있어 노동시장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젊은이와 경쟁이 되지 않은 분야에서 틈새시장을 개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미국은 「연령차별 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 ADEA)<sup>5)</sup>이 있어 연령상의 이유로 강제퇴직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 나이가 노동능력의 기본지표이긴 하나 개별사례에 따라 나이와 건강상태는 무관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건강 상태를 증명할 수 있다면 연령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중년여성의 노후 취업목적과 노동력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촉진 정책은 노후 취업 중년여성을 취업목적, 노동시장 적응도, 학력, 취업경력별로 나누어 각각의 집단에서 필요한 교육훈련, 취업알선 등의 구직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가 필요하다. 취업목적이 생계형일 경우 미국의 SCSEP처럼 정부의 예산 지원을 통해 취업이 되도록 한 뒤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거나 복지예산의 보조를 받는 일자리가 주어지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 2. 중년여성에 적합한 직업상담의 활성화

취업알선기관의 우선적인 문제는 여성의 노후에 희망직종과, 건강상태, 업무능력에 대한 충분한 상담 없이 취업배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취업알선과 상담에 있어 주요한 요소로 일을 하고자 하는 주목적이 생계형인지 생계보조형인지, 아르바이트형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 알선기관에서의 정보가 공유되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국의 NCOA의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SCSEP(고령자 지역사회서비스 고용프로그램,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sup>6)</sup>에 참여한 노인 가운데

- 5) 고용 상 연령차별금지법은 1967년 제정되었는데, 당시에는 40세 이상 65세 이하의 근로자에 대한 강제퇴직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그 후 1978년 법의 개정 시 의무퇴직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그리고 1986년 법의 개정 시 의무퇴직연령을 일부 특수 직종을 제외하고 아예 없애 버려 연령상의 이유로 강제적으로 퇴직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의 법은 사회에서 노인들에게 연령을 이유로 강제퇴직을 요구할 수 없으며, 퇴직은 오직 노인들의 개별적 판단에 의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 6) 현재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고령자를 위한 취업프로그램으로, SCSEP는 55세 이상 비취업 상태인 저소득층(빈곤선 125%이하 소득미만) 노인들이 지역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에 배치되어 지역 사회를 위한 서비스활동을 할 수 있도록 취업교육 및 시간제(보통 주20시간)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1/3이 여성이며 가사노동이외의 직업적 경험이 거의 없는 여성 고령자에 대한 숙련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되는 예가 많다고 한다. 또 SCSEP프로그램 참여자가 적절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참여자의 가족특성과 개인적 특성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직업훈련을 받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한국의 노인취업상담 기간에도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함을 말해준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년여성이 노후에 사회생활의 경험이 부족하여 취업이나 고용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취업욕구에 대해 정확하게 모른 채 취업알선 기관을 내방하는 경우가 많아 장시간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 여성은 노후에 직업경력이나 학력 등이 아주 다양하여 미국 SCSEP의 서비스처럼 구직자의 특성에 기초한 상담과 교육훈련이 이루어진다면 여성노인 고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의 SCSEP는 취업경력과 노동능력에 있어 경쟁력이 떨어지는 여성노인의 취업지원에 개인별 차별적인 상담 서비스와 직업훈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또한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경우에도 노인집단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고용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실버인재센터<sup>7)</sup>는 회원제로 운영되어 회원가입과 회비 납부를 성실하게 하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과 취업교육프로그램으로 시니어워크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고령자의 직업능력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또한 고용이나 취업이 어려운 여성 고령자를 회원제로 조직하여 지속적으로 일거리를 제공하여 소득을 보장해 주는 여성노인공동인력사업 등의 운영방식을 생각해주게 하여 중년여성의 노후취업에 시사점을 제공 한다

---

일정 소득을 얻도록 제반 역할을 수행한다.

- 7) 실버인재센터는 60세 이상으로 건강하고 활동할 의사가 있는 노인들 대상으로 한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고령자에 적합한 일을 위탁받아 배분해 주며 임금은 정해진 작업량에 따라 나누어진 배분금을 받는다. 실버인재센터에서 제공하는 일을 하는 경우 노동관계법규의 적용을 받고 센터와 고령자가 취업규약을 맺으며 실버보험(손해배상책임)에도 가입된다. 실버인재센터협회의 조직은 지역의 개별센터가 광역단위 협회로 연합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예산보조를 받아 공공이익기업 형태의 사업단을 꾸리고 있다. 각 사업단은 지역 내의 가정과 기업, 공공기관에 일거리를 위탁받아 회원인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기업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처럼 실버인재센터는 지역에서 가정, 기업, 공공기관의 일거리를 회원인 노인과 연결해주어 노인 취업 및 소득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 3. 중년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의 활성화

여성에게 적절한 직업을 개발하고 선정하여 직업교육훈련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여성의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즉, 중년여성의 노동시장 적응도에 따라 그 특성에 맞게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후 재취업활성화 정책의 방향은 장기적, 단기적인 추진 각 단계별 목표를 갖고 추진되어야 한다. 단기적 측면에서 중년여성의 노후에 직접적인 효과성이 미비한 상태에서 노후 재취업의사가 높은 중년여성들이 실제로 일하고자 하였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직업훈련이다. 중년여성은 다양한 생애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알선기관에서의 현재 취업상담은 개인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취업가능한 직종의 교육을 받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은 간병인, 베이비시터 등을 제외하고는 여성노인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따로 마련된 것은 없는 실정이다. 저학력으로 단순직종에 주로 종사하였던 현재 여성노인과는 달리 미래의 여성노인은 고학력이거나 전문직, 사무직 경력을 가지고 있는 등 여성노인의 질적 변화가 예상되므로 직업교육서비스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취업알선기관은 주 업무가 구인구직 알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고령자 취업훈련 전문기관이 없는 현실에서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이나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이 여성의 노후 취업훈련을 할 수 있는 기관이다. 그중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유사한 성격의 여성관련 기관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① 지역특성에 맞는 틈새직종의 전문직종을 개발하여 취업으로 연결, ② 전문교육 훈련 프로그램화, ③ 직업의식 교육 강화, ④ 노인 취업분야 개척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설치하여야 할 것이며, 중년여성의 직업훈련을 노후 재취업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취업교육이 다양해져야 할 것이다.

미국의 SCSEP는 새로운 노인인력 활용의 전략 하에 노인을 숙련노동자로 재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SCSEP는 경제현실의 변화에 노인이 적응할 수 있도록 고용 및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해 준다. 최근에는 고령자고용정책에서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SCSEP는 노인들

이 취업하여 더 이상 보조금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고용주의 수용에 부응하고 지역사회에서 고용주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홍미령, 2001).

일본의 경우 실버인재센터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일회적인 취업알선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취업알선센터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 주로 지역사회에서 일을 의뢰받아 노인 회원에게 분배하는 방식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형 사업단을 구성하여 노인 소득사업을 병행하는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시니어클럽과도 다르다.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일본의 프로그램에서와 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노후 취업의사가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체계적이며, 단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중년여성이 노후에 의존적인 생활에서 탈피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년여성의 노후 재취업을 위한 양질의 고용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 노후 노동시장의 진입을 원활히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채용정보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적인 고용정보망(Work-net)을 구축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겠다.

재취업을 원하고 있으나 직업능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중년여성들에게 충분한 취업상담과 함께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노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중년여성의 노후 재취업은 고령화 사회에 있어 사회적 부양부담의 완화와 노동시장 측면에서 부족한 인적자원의 활용 및 노년기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는 등의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중년여성의 노후재취업 욕구가 분명 존재하며 지금까지 고령자 고용정책에서 주 대상을 삼지 않고 간과해왔던 중년여성에 대한 노후 고용정책 및 취업관련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중년여성의 노후 재취업 욕구(needs)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고려한 고령자 고용정책과 취업알선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보다 효율적으로 중년여성의 노후 재취업욕구가 충족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앞으로 고

령사회가 도래되어 고령인구의 다수를 차지할 중년여성이 소득보장과 함께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며 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적 부양부담의 완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도 함께 해결 될 것이다.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과 앞으로 더 보강되어야 하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표본수집에 있어 대체로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시켜서 전체 중년여성의 재취업의사를 추론하는데 지역적 영향이 남아 있음을 배제할 수 없으며, 중년여성의 재취업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정함에 있어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를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선별하여 연구에 이용함으로써 연구에서 배제된 기타 영향변수를 간과하였다.

끝으로 연구 진행 내내 직면하였던 어려움으로 여성노인 고용문제와 중년여성의 노후 재취업 문제의 균형을 잡는 문제였다. 중년여성의 노후 재취업문제는 현재 여성노인의 고용문제로 중년여성의 노후 재취업 문제를 거론하면 여성노인의 고용문제로 포괄적으로 귀결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 제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장기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더욱 의미 있고 수준 높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본다.

□참 고 문 헌□

- 강철희·김교성·김진옥(1999),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실업기관과 재취업에 관한 실  
증연구”, 한국사회복지학.
- 구인회(2004), “한국의 빈곤-왜감소하지 않는가? 1990년대 이후의 빈곤추이 분석”,  
한국사회안전망의 현황과 대책 심포지엄, 한국사회복지학회.
- 국민연금관리공단(2004), 「국민연금통계연보」
- 국민연금발전위원회(2003), 「제1차 국민연금재정계산과 국민연금제도의 발전방  
안」.
- 김명자(1988), “중년기 위기감 및 그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숙외(2003), 「고령화사회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정책대응방안 : OECD국가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3-14
- 김수곤·심영옥(1984),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요인분석, 한국개발연구원연구보  
고서」, 한국개발연구원
- 김종주(1997), “전직실업자의 노동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홍(2000), 「여성고용구조의 변화와 향후 정책방향」, 한국여성개발연구원 연  
구보고서.
- 김학주·우경숙(2004), “중·고령자의 재취업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한국노년학회.
- 김혜연·김순미(1997), 비취업 기혼여성의 취업의사와 영향요인 분석, 대한가정학회  
지, 대한가정학회.
- 남정림(1992), “여성노인의 빈곤화 원인과 정책에 관한 여권론적 접근법”, 여성연구  
37호.
- 동아일보(2004), “노인하루 10명꼴 자살”, 2004년 10월 14일 A29면
- \_\_\_\_\_ (2005), “노후생각하면 잠이 안와... 50대 지갑을 안 연다”, 2005년 4월 8  
일 1면.
- \_\_\_\_\_ (2005), “한국 연기금 개혁 시급”, 2005년 4월 14일 1면

- 류기철(1999), “실업급여 수급 실직근로자의 재취업 양상”, 경제학 연구.
- 류태균·김진욱(1998),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실업 탈피에 관한 실증연구”, 연세사회복지연구.
- 문숙재·여운경·임혜은(2002), “여성노후빈곤과 국민연금제도 확대실시에 관한 연구 : 노인가구의 연금소득 수급액 결정요인분석”. 제주6차 춘계학술대회발표집,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 문현진(2002), “여성노인의 소득보장정책에 관한 연구”, 국제신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차상·김옥희외(2002),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 보건복지부(1999), 「보건복지백서」
- \_\_\_\_\_ (2000), 「2000년도 노인복지 국고보조사업안내」
- \_\_\_\_\_ (2003), 「보건복지백서」
- 삼성경제연구소(2004), “2004. 4/4분기 소비자태도조사”.
- 석재은(2003),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실태, 원인과 정책방안」,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53호, 2003.
- 선영규(1986),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요인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병돈·남기철(2002),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의 안정적 발전 방안”, 보건복지부.
- 손선경(1984), “노후생활대책에 대한 성년층의 의식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 안혁준(2002), “고령자 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승주(1993),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요인 분석”, 여성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1999), 「노인과 한국사회」, 사회문화연구소.
- 여정성(1994), “기혼여성의 취업과 자녀출산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대한가정학회.
- 오클리, A. 저, 문숙재(역)(1993), 「가사노동의 사회학」, 서울, 신광출판사.
- 이가옥외(1994), 「노인생활생활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94-17.
- \_\_\_\_\_ (1994), 「노인실태와 노인복지의 정책과제」, 서울 흥익재

- 이가옥·이미진(1999), 「노인복지정책과 향후 발전과제」, 노인복지정책연구.
- 이가옥, 최유진(2000), “선진각국의 고령자 고용정책”,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노인  
취업의 현황과 과제」
- 이인재외 (1999), 「사회보장론」, 나남
- 이재희(2004),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생활  
과학회지, 한국생활과학회.
- 이지은(2000), 중년기 직장남성의 노후 생활계획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행숙(1996), “주부의 노후생활준비의식·행동 및 경제대책에 관한 연구”, 숙명여  
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혜경(2000), “여성빈곤의 현실과 사회복지 정책”, 「한국여성단체연합 정기 가을  
심포지엄 발표문」, 한국여성단체연합.
- 이희경(2003), “중년층 직장인의 노후생활 대책에 관한 의식 조사 연구”, 대전대학  
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경은(1998), “도시 저소득 중년층의 노후생활 준비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 임장순(1990), “도시인의 노후생활 대책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 장지연(2003a), “고령자 임금보조제도의 고용촉진 효과 분석”, 고령화사회와 노인  
인력의 활성화 방안, 한국노년학회세미나자료집
- \_\_\_\_\_ (2003b),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정책:한국사례”, 한국노동연구원, 고령화시  
대 노동시장 정책(Ⅱ):각국사례 세미나 자료집
- 장창원(2004), “중·고령층 재취업 결정요인분석과 정책과제”, 진로교육연구, 한국교  
육진로교육학회.
- 장혜경·김영란(2003), 「고령사회 대비 여성노인 고용활성화 방안」, 한국여성개발  
연구원 2003 연구보고서.
- 정경희(1997), “여성노인의 삶과 질 :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 정경희외 (1998),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  
구원, 정책보고서 98-04.
- 진수희(1992), “한국의 여성노동시장, 여성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진용성(1996), “근로자의 노후대처유형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동욱(2000), “실버 파워”, 코리아 뉴스 112호
- 최일섭·이인재(1996), 「공공부조의 이론과 실재」, 서울 집문당.
- 최점수(1994), “직장인의 노후생활준비의식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 추기철(2000), “한국중년층의 노후 대책에 대한 실증적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통계청(2000), “사회통계조사, 노후준비방법”, 인터넷자료, 2000. 4. 23.
- \_\_\_\_\_ (2001), “장래인구추계”
- \_\_\_\_\_ (2003a), “고령자통계”
- \_\_\_\_\_ (2003b), “사회통계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 기본선」
- 한국여성개발원(1993), 「여성노인」
- 한국여성개발원(1994), 「초기노인여성의 사회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여성개발원(1996), 「여성통계연보」.
- 홍미령(2001), “미국의 노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프로그램”,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주요선진국의 노인복지 서비스정책」
- 홍성희, 김성희 (1997), “노인의 여가태도 및 여가계약유형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도”, 한국가정학회지, 35(3)
- 황승일(2000), “초기노인의 노후관련태도와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황윤재·최강식(1998), “기혼여성노동공급행위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Adamchick, Vera(1999), “The Effect of Unemployment Benefits on the Probabilith of Re-employment in Poland”,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61.
- Atkinson.A, B., & Micklewright, J.(1991), Unemployment Compensaton and labor market transition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 Belzil, Christian(1996), “Relative Efficiencies and Comparative Advantages in Job Search”.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 14.
- Bronars, Stephen G. and Famulari, Melissa.(1997), “Wage, Tenure, and Wage

- Growth Variation Within and Across Establishments",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 15.
- Cain, G.G.(1966), *The Economic Analysis of Labor Market Discrimination : A Survey*, Ashenfelter, O & R.(ed). *Handbook of Labor Economics*, 1, Holland: Elsevier Science Pub.
- Gottschalk, Peter and Maloney, Tim.(1985), "Involuntary Terminations, Unemployment, and Job Matching: A Test of Job Search Theory",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 3.
- Couch, Kenneth A.(1992), "New Evidence on the Long-Term Effects of Employment Training Programs",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 10.
- Lazarus, R. & S. Folkman(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York, NY : Spring.
- Leibowitz, A(1974), Education and Home Produc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 Lester C. Thurow(1972), Education and Economic Equality, *Public Interest*, Summer.
- Maxwell, Nan L.(1989), "Labor Market Effects from Involuntary Job Losses in Layoffs, Plant Closings ; The Role of Human Capital in Facilitation Reemployment and Reduced Wage Losses", *The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vol 48.
- Mincer, J.(1962),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A Study of Labor Supply*, Aspects of Labor Economic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onference Stud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mith, Brian T. & Rubin A.(1997), "From Displacement to Reemployment ; Job Acquisition in the Flexible Economy", *Social Science Research*, vol 26.